

“호남고속철 등 KTX 민영화 수정 노력”

與 비대위, 정부정책 첫 반대… MB 정부 단절 가속화 관측

민주통합당도 당론 반대

한나리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12일 철도운행 시장을 민간참여 경쟁 체제로 재편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 방안이 수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횡령철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KTX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있는 만큼 당장을 통해 비대위의 입장장을 전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현정 비대위원이

SNS 상에서 부정적 의견이 있다고 보고했고, 비대위 전체가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면서 “박근혜 비대위 위원장도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크고 그런 것은 질 높고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니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도 “오늘 회의에서 정부의 KTX 민영화가 D그룹에 대한 로비 특혜라는 설 등 SNS상의 부정적 여론이 다수라는 일부 비대위원의 보고가 있었다”며 “4대강 사업 때도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상황도 비슷하게 진행돼 민심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었고 대부분의 비대위원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한나리당 비대위가 정부 정책에 대해 명시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박근혜 비대위’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단절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TX 민영화 논란은 국토해양부가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보고에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지역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호남고속철도 KTX가 원곡대 운행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견보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리당이 이처럼 반대를 하고 나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도 이미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주승용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다 실패하자 또다시 KTX를 민영화를 시도하려한다”면서 “지분매각이 아닌 운영권 매각이다. 해외기업에 먹튀하게 만들어 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재벌에게 특혜 주려는 것인지 미명박 정부와 재벌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의장은 “고속철도는 연간 3000억 원 정도의 흑자를 내서 적자를 보고 있는 일반철도인 새마을호·무궁화호·통근열차의 적자를 격차보조 해주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고속철을 민영화했을 때 서민과 중산층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하다”고 말했다.

/박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안군 삼행읍에 들어선 전남도립도서관이 12일 오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박준영 전남지사 등이 ‘어린이 책나라’에서 어

전남도 제공

전남도립도서관 문 열어

린이들과 구연동화를 듣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재정자립도 꼴찌

성·고흥·구례·곡성·담양군 등 16개 시·군은 자체 재원으로 공무원 급여도 충당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만큼 개선 노력이 절실히”며 “단순히 자체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의 세제개편을 포함해 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KTX 광주역 진입 놓고

북구 광산구 의회도 공방

호남고속철도 KTX 광주역 진입 여부를 놓고 지역 국회의원 간 이견을 보인다. 이어 해당 지역의회들이 성명 발표를 통해 공방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권 KTX 이용객의 60%가 광

주역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 정부가 KTX의 광주역 진입을 수용한 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또 “KTX 이용객의 편리성과 구도심 활성화, 도심균형발전을 위해 KTX 광주역 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복합환승센터는 KTX 광주역 진입을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의 이날 성명 발표는 전날 광산구의회가 KTX 정차역을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로 통합해야한다는 성명을 반박한 것이다.

앞서 광주 광산구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KTX 정차역을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로 통합해야 한다”며 “정부와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 운영을 비판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의회는 이어 “KTX 광주역 연결선 건설

타당성 조사는 국토해양부의 ‘1도시 1역’ 원칙에 위배되고 광주 송정역 일원에 총 사업비 5000억원이 소요되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광주시당과 광주시 정책협의회에서 강기정(광주 북갑) 의원과 김동철(광산 갑) 의원이 KTX 광주역 진입문제로 이견을 보았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20개 시·군·구 자체 수입 공무원 급여도 해결 못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20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으로 속초 공무원의 급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등 자체 재정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함평군(8.1%) ▲고흥군(8.8%) ▲강진군(9.3%) ▲곡성군(9.4%) ▲완도군(9.6%) ▲해남군(9.7%) ▲장흥군(9.9%) 등의 재정자립도도 10% 미만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광주 광산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나주시와 신안·진도·완도·장성·영광·함평·무안·해남·강진·장흥·보

미치는 못하는 47.5%에 그쳐 6개 광역시 중 가장 낮았다.

김 의원은 “호남지역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니만큼 개선 노력이 절실히”며 “단순히 자체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차

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별소비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편입하는 방안과 교부세 정비 등의 세제개편을 포함해 자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방안을 전문가 집단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경일기자 cki@kwangju.co.kr

안철수 “이달말 기부재단 구체화”

빌게이츠 만나 한국 초청

잠재적 대권주자로 주목받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빠르면 이달 말 자선재단 출범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11일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자선 재단인 빌 & 멘델린 자선재단을 운영하는 빌 게이츠 MS 전 회장을 만난 직후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기부재단에 대한 개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시애틀 외곽

게이츠 전 회장 개인 사무실에서 게이츠 전 회장을 만난 안 원장은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기부재단이) 대강 잘 윤곽이 잘 잡혀 나가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쯤”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인터뷰와 구글 애릭 슈미트 회장 면담 내용 설명 등에서 정치적 행보로 익히지 않은 안 원장은 이날은 극도로 말을 아꼈다.

케이츠 전 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도 기부재단 관련에 한정되었다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시애틀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개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게이츠 전 회장과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혔다. 안 원장과 게이츠 전 회장은 면담이 끝난 뒤 공동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눈길을 끌었다. 보도 자료는 게이츠 전 회장이 안 원장과 ‘사적(私的)’ 만남을 가졌고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대화 내용은 ‘세계 경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과 가난 구제’, ‘저개발국가에 대한 원조’, 그리고 ‘정보통신(IT) 산업의 동향’ 등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정일 금수산궁전 부친 옆서 미라 ‘영면’

북 노동당 ‘특별보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에 이어 평양 금수산기념궁전에 미라 형태로 영구보존된다.

북한 노동당 종양위원회 정치국은 12일 ‘특별보도’를 통해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고 공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지난달 평양에 초청된 러시아 생화학기술센터 전문가들이 김 위원장의 시신을 방부처리한 뒤 투명 판에 넣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될 것으로

친인 김일성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곳으로, 북한에서 ‘최고의 성지’로 통한다. 평양 대성구역에 있는 이곳은 원래 김 주석의 관저이자 집무실이었다.

특별보도가 ‘생전의 모습’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시신도 김 주석처럼 미라로 만들어 영구보존된다.

북한 노동당 종양위원회 정치국은 12일 ‘특별보도’를 통해 “주체의 최고 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고 공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의 시신을 방부처리한 뒤 투명 판에 넣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 지도자였던 부자의 시신을 모두 영구보존하는 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

특별보도는 또 김 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 주석 사망 이듬해인 1995년 김 위원장의 생일을 ‘민족의 대의 명절’로 정했지만, 김 주석 생일이 ‘태양절’로 불린 반면 김 위원장 생일은 별도 명칭이 없었다.

이와 함께 특별보도는 김 위원장의 동상을 건립하고 각지에 김 위원장의 ‘태양상(초상화)’을 설치하는 한편 영생탑을 건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가은 부동산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대지면적: 960평
-매매금액: 45억원
-용지금액: 20억원포함

상무지구빌딩매매

-대 지 : 257평
-연평형 : 900평
-보증금 : 4억3천만원
/월2200만원
-용자금 : 10억원
-매 매가 : 38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

-분양면적 : 106평
-보증금: 5천만원/월 650만
-용지포함
-매매가 : 15억5천만원
(현, 마트 / 카페)

상무지구 릴레이세니어 1층

-분양면적 : 600평
-전용면적 : 350평
-대형음식점, 베페 적합
-매매가 : 상담후 결정

상무지구 랜드파이어사거리

-FAX: 02-1772 훤 011-602-2532
(상무지구 아파트 10층)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설분과 얻으실 문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율하니 끌어드리겠습니다.

부지500~1000평구형, 주거2종이상에서 상업지역까지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나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오피스텔 상가

●시청앞 오피스텔상가(1층)분양가 이하 금액 1,174㎡

매매가 상담후 결정. 분할매각 가능 합니다.

투자 및 사업용 토지.</